칼 럼

장 기 채 주 필

실버들이 당당한 사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데도 고령친화산업의 진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용없는 성장으로만 일관해 왔다.

청년 일자리 부족, 중장년층 조기퇴직,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와 복지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학의 발전은 '100세 시대'로의 세상으로 진입시켰다.

2050년경 한국은 전체소비자 3명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노인이 막강한 소비주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꾸준한 고령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실버산업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5.4%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는 실버산업의 발걸음이 매우 느리다. 지금의 추세라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린다.

국가연합(UN)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09년 12.7%로 미국(17.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상승속도가 점차 빨라져 2050년에는 62.9%에 이를 전망이다.

공적 측면에서 노인의 나이는 법적으로 보면 그 기준이 법령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국민연금법에는 60세로 규정한다. 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55세 미만은 준 고령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노인연령 기준은 들쭉날쭉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로 인식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70세로 하자는 의견도 많다. 어쨌든 한국은 일하는 노인이 많다. 한국 노인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많이하는 이유는 노후보장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45세가 되면 정년퇴직한다는 '사오정'이나 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는 일본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한 예다.

나이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나 모습만 봐도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금방 알아내기 때문에 기계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선 매우 가치있는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즘엔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산층 노인도 많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불과 7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모두의 절실한 현실이다. 이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경험과 인생경험을 터득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고용을 막는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이 나라의 고령자(65~79세)의 42.7%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 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인간 생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노후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노인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다.

'은발의 현역'이 더 행복해야 하는 이유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社 說

바람직한 건강검진 대상 확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니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단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구급권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이삼십대의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 간기능 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생활습관평가는 40~70세 대상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에 대한 설문 및 상담을 말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恭	공손할	공	恭惟鞠養
惟	생각할	유	▷뜻: 국양(鞠養)함을 공손(恭遜)히 해야 함.
鞠	공	국	
養	기를	양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우리의 전통시장 작은 관심으로 화재예방 생활화 해야

날씨가 싸늘해지고 월동기로 접어드는 화재예방 늦은 가을철이 다가 왔다. 이에 따라 제철 음식이 많아지는 전통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은 물품과 정보가 교환되는 고유기능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무료한 삶을 달래주는 소통 기능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쇼핑 공간이다. 그러나 좁은 통로와 출입구, 노후된 시설, 밀집된 점포, 겹겹이 쌓인 가판대 등으로 인해 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전개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는 1700여개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77건, 사상자 4명, 103억여원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 발생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부주의, 원인미상,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주기적인 자체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초기 진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통로가 협소하고 주변 장애물이 많으면 소방차가 도착해도 진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상인들 스스로가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속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무안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 자위소방대를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영업을 종료한 점포들은 귀가하기 전에 전기, 가스 등을 반드시 차단하여 전열기구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유사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시장 내 무질서한 좌판이나 적치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소방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주기적인 화재예방 방송과 야간 자율순찰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전통시장이 항상 추억의 공간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